

A Case Study Research on the Issue Factors Appearing in the LiFE Project Participation Process of A Junior College

Gim, Eunbyeong (Kore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Jeon, Yeni (Kore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Lee, Jiyoung (Korea University, Master's Student)
Cho, Daeyeon¹⁾ (Korea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issues occurring in junior colleges participating in the LiFE project, which is a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for universit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phenomena of each issue factor. To this goal, using the case study research metho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dult learners, junior college officials, and professors of a college who participated in the LiFE project. The results first confirmed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the needs of the adult learners, the demands for practical purposes, and the goal of promoting self-esteem should precede at the adult learner level. Second, at the junior college level, it was confirmed that operating a project in connection with the junior college and the region could be a way to remove the learning obstacles of adult learners who have difficulties in balancing work, study, and family. Third, at the system level,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adictory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problem of securing the basic level of adult learners and the problem of flexible admission standards, the biggest task of the LiFE project, should be improved and compatibility should be explored.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system of university support project, LiFE project, higher lifelong education, junior college, case study research

1) Corresponding Author: Cho, Daeye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02841 / E-mail: chodae@korea.ac.kr

A전문대학의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김은경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생)
전예니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생)
이지영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생)
조대연¹⁾ (고려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지원사업인 LiFE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쟁점요인별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A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학교 관계자, 교수자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성인학습자 차원에서는 성인학습자가 가진 학습 본연에 대한 요구와 실용적 목적의 요구, 자아존중감 고취 목적 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학습·가정의 병행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진 성인학습자의 학습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제도 차원에서는 LiFE사업의 최대의 과제인 성인학습자의 기초수준 확보 문제와 입학기준 유연화 문제의 모순적 충돌구조를 개선하고 양립가능성을 탐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사업, 고등평생교육, 전문대학, 사례연구

1) 교신저자: 조대연,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 E-mail: chodae@korea.ac.kr
논문투고일자: 2022. 2. 15 / 심사일자: 2022. 2. 16 / 게재확정일자: 2022. 3. 7

I. 서론

현대사회에서의 고등교육 형태는 엘리트 모형에서 대중 모형으로 변화하였으며, 대중 모형은 또다시 보편 모형으로 변화하였다(Trow, 2007). 특정 계급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고등교육에서는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평생학습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Jeong et al., 2019), 특히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중장년·노년층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대학에 있어 위기가 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의 증가와 중도탈락율 증가는 대학에 위기로 다가오지만, 인생 2모작·3모작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의 생애 경력 설계는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평생학습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대학에 기회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38%(약 750만 명)가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로 추산되며(NCES, 2020),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등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익스텐션 스쿨(extension school)은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위를 제공하는 14개 단과대학 중 하나로서 전문적 기술 향상, 직업 준비, 개인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의 워릭 대학 역시 평생학습센터(center for lifelong learning)를 기반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Cho & Kim, 2017). 또한, 독일의 U3A는 66개 국립대학 내에 설치되어 노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Park, 2019).

국내에서는 2008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작되며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중심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생교육 접점기로 비학위 중심 체제에서 학위 중심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체제 개편 기반 조성기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이후, 체제 개편 가속기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이 통합·개편되어 운영되었으며, 2019년에는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며 질적 도약기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대학의 중장기 사업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NILE, 2021a).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Trow, 1999). 대학 중심의 평생교

육 활성화 정책인 LiFE사업 역시 성인학습자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요인을 유발하였다. 2021년 LiFE사업은 다년도 사업 체계에 따른 연차적 고도화 및 중간평가 추진, 성인친화형 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성인학습자의 학습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사업 보완을 중점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2월 기준 신입생 중도탈락율이 2019년 4.8%에서 2020년 5.7%로 증가하였고, 고등교육에 진입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 수요는 다양하나, 입학전형 등 관련 제도 및 사업구조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이에 따라 LiFE사업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참여 교원의 인식 분석(Ko et al., 2021), 사업 설계 오류 분석(Yang, 2020), 학사제도 유연화 사례 연구(Yeon, 2020) 등의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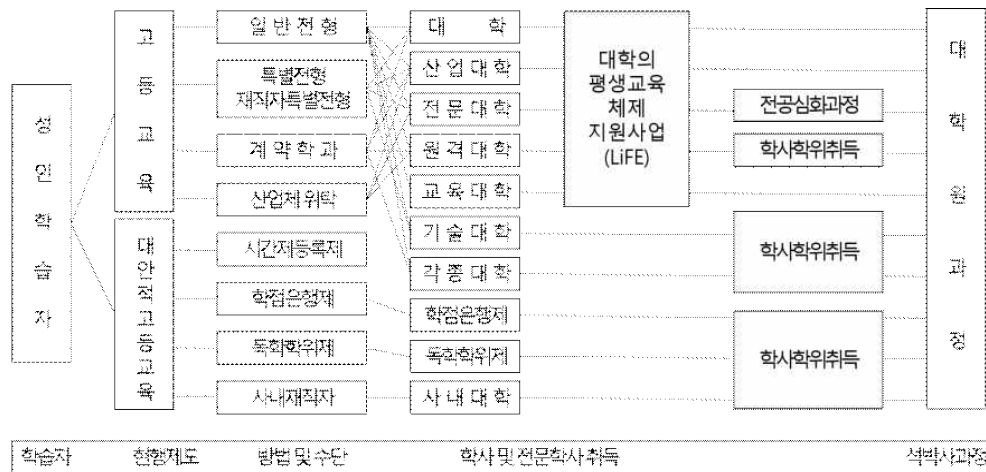
그러나 2019년 LiFE사업 지원 대상에 전문대학이 포함되었고, 2021년 기준 참여대학 총 30개교 중 7개교가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는 전문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의 성인학습자와 단과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와 관련하여 단과대학 재구조화 방안(Lim & Kwon, 2018), 참여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변화 양상의 분석(Yang et al., 2021)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 의사에 미치는 요인 분석(Ahn, 2021)에 대한 선행연구 모두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의 참여기회 확대로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하며, 산업경제성장과 고등직업교육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등(Lee & Hong, 2018) 4년제 대학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의 LiFE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LiFE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요인에 관하여 정책적 측면, 운영적 측면, 성인학습자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전문대학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쟁점요인별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연도별로 발행된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을 분석함으로써 LiFE사업의 현황을 개괄할 것이다. 다음으로, LiFE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운영관계자, 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LiFE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실증적 사례를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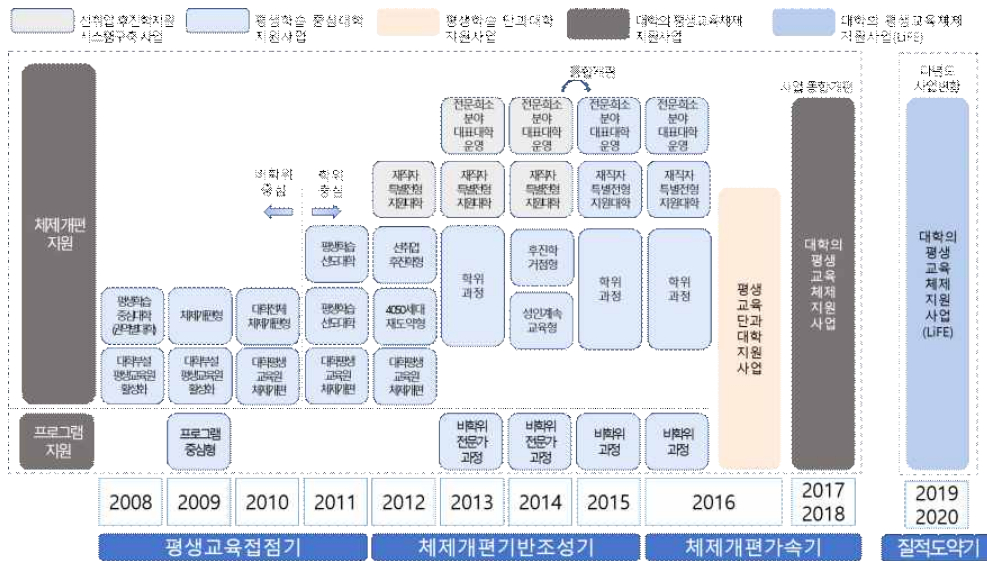
대학평생교육은 고등교육 전체에 있어서 비학위 과정과 인문교양교육, 여가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교육의 중요한 기능으로 고등교육의 체제개편을 통한 학위과정 운영이 본격화되었다(Yang, 2019). 2008년 정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학령인구의 감소, 일과 학습 병행의 수요, 대안적 경로의 학점과 학위 취득 제도 활성화 등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고령화·정보화시대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한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NILE, 2021a).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인 학습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등교육에 진입하고 있으며, LiFE사업은 그 경로 중 하나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진입경로(NILE, 2020, p. 428)

인구구조의 변화, 평생학습의 수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평생학습으로의 방향 전환을 토대로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전환사업은 2008년 교육부의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에는 교육성과 달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대학전체 체제개편형, 대학평생교육원 체제개편의 대학 차원의 체제 개편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평생학습을 위한 특성화 모델을 추진하면서 평생학습 선도대학, 평

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2년에는 성인학습자 유형별 전략 트랙 개설 및 대상 확대로 대학체제 개편형,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3년에는 대학 차원의 체제 개편 가속화 및 신수요 분야 발굴에 중점을 둔 평생학습 중심대학, 비학위 전문가과정이 추진되었고, 2014년에는 학습자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 및 고도화에 중점을 둔 평생학습 중심대학, 비학위 전문가과정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고졸 재직자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6년에는 고졸 재직자·성인학습자 대상 학과형 모델, 비학위과정 중점지원의 평생학습중심대학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림 2]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NILE, 2021a, p. 333)

2017년에는 기존 사업의 통합·개편을 통해 자율적 평생교육 모델을 육성하였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담조직을 대학 내에 설치하여 성인친화적 학사 운영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시도를 했다. 2018년에는 선취업 후진학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단년도 지원체계가 아닌 다년도(2+2) 지원사업인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사업으로 브랜드화하여 대학이 성인학습자에 적합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대학의 중장기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NILE, 2021a).

교육부는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LiFE사업으로 브랜드화하며, 전문대학

7개교를 포함한 총 30개교를 지원하고, 전년도 규모로 예산을 유지하였다. 그동안 예산지원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사업의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지속성 유지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 체제구축 지원 체제가 취약하였고,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다년도 체제지원과 함께 전문대학의 사업 참여가 요구되었으며,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신설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성인 친화형 대학시스템 전환을 위한 후학습 거점대학 30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기초학습지원, 교육과정 개발, 상담지원 역할을 하는 성인학습지원센터를 필수로 두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 2020년 LiFE 사업 참여 대학은 113개의 학과와 3,912명의 성인학습자 모집 정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문대학의 참여는 대학별 특성화 장점을 지닌 성인 친화형 학과 신설을 유도하였고,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기존 대학 체제를 개편하는 역할을 하였다(NILE, 2021a).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 분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을 공유와 홍보의 목적으로 2018년부터 발간하였다(NILE, 2019, 2020, 2021b).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은 LiFE사업을 통한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현상과 쟁점요인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기집이 발간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된 2019년부터의 2개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기집 참여 인원은 3개년 총 169명으로 수도권 4년제 대학 48명, 비수도권 4년제 대학 92명, 전문대학 29명이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 문항은 LiFE사업에 참여한 동기 및 목적, 학교생활, 향후 계획, 바라는 점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첫 졸업생의 이야기가 2020년 수기집 자료에 추가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문항은 대학생활 회고, 내가 이룬 학업성취, 공부로 얻은 직무성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이었다. 3개년의 수기집에 등장하는 성인학습자의 기본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성인학습자의 기본정보

구분	일·학습병행 인원비율	남:녀 비율	평균연령
4년제대학(수도권)	81.6%	5:5	29.6세
4년제대학(비수도권)	84.8%	5:5	46.6세
전문대학	85.2%	3:7	53.8세

수기집에 나타난 특징은 정책적 측면, 운영적 측면, 성인학습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LiFE사업 참여대학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과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과정으로 나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성인학습자의 연령대로 확연히 구분된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의 경우 평균연령은 29.6세였으며,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46.6세였다. 수도권의 경우 경영과 관련된 실무 밀접형 전공이 많았으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의료·보건관련 전공에 재학중인 학습자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연령대의 수도권 성인학습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진학한 경우가 많았고,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의 경우에는 은퇴 후 재능기부, 봉사의 목적으로 진학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운영적 측면에서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나 야간, 주말 수업으로 구성되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설계가 되어 있었고,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정원문화학과의 경우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ICT융합학과의 경우에는 ICT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셋째, 성인학습자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특성화고 재학시절 대학의 재직자 전형에 대해 미리 알고 3년의 재직기간을 채운 후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고졸이라는 한계를 느끼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거나, 또래 친구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의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취업전선에 일찍 뛰어든 중장년층이 많았다. 이들은 학업을 지속하며 학위를 취득하고자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100세 시대의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참여한 학생도 있었다. 성인학습자들은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얻고자 참여했던 성인학습자와 재취업을 위해 참여했던 성인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 부분이었다. 한편, 학교생활을 경험해보고자 기대를 했던 성인학습자들은 야간, 주말 수업으로 인해 캠퍼스 내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뽑았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LiFE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답변도 많았다.

전문대학 성인학습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7:3으로 월등히 높았다. 평균연령은 4년제 대학 성인학습자보다 높은 53.8세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비율 역시 85.2%로 4년제 대학 학습자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직업군은 일반 회사원부터 요양보호사, 강사, 자영업,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습 참여동기는 대학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은 경우, 전공에 흥미를 가지고 학업을 해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드론공학과, 자연건강융합과, 뷰티패션융합과,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등 취미 혹은 생활밀접형 학과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긴 학위 과정이 부담되거나, 보다 쉬운 난이도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학사 과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문대학에 진학한 성인학습자들은 지인의 추천으로 LiFE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학업 과정에서 학업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으며, 자격증 취득, 특강, 동아리 등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또한,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교수와의 관계였다. 연령대가 비슷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누구보다 친밀했고, 교수의 열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학사 취득 이후의 계획으로는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LiFE사업에 바라는 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홍보였다. LiFE사업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어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의 평균연령이 높고,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학습참여동기와 학습요구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와 요구는 각각 달랐지만, 학습자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학교 생활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더욱 학습에 매진할 수 있고, 학습과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차원에서는 학습지원센터의 강화된 역할을 중심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는 성인학습자와 대학의 실제적 맥락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LiFE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전문대학의 LiFE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요인과 쟁점요인별 특징적인 현상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사용된 사례연구는 실제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 방법이며(Yin, 2009) 경계가 있는 체계로서(Smith, 1978), 사례를 통해 이론을 확장하는 분석적 일반화에 목적이 있다(Yin, 2008). 본 연구에서는 LiFE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현상에 대하여 전문대학 맥락 안에서의 실증적인 접근을 위해 사례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A전문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한 인지도 높은 학교로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가장 오랫동안 참여한 대학이다. LiFE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로 성공적인 운영을 유지하다 최근에 LiFE사업에 미선정된 상황을 배경으로 쟁점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LiFE사업에 참여 중인 A전문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LiFE사업에 참여 중인 전문대학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쟁점요인과 특징적인 현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A전문대학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A전문대학은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3년째 단과대학형으로 LiFE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면담 대상인 A전문대학의 구성원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부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성인학습자, 교수, 성인학습지원센터 직원, 전(前) 성인학습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구성되었다. 성인학습자 5인은 학교 생활에 참여율이 높고 1년 이상 재학 중인 30~40대의 학생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자는 단과대학의 학과장을 맡고 있고 교수로서 학생을 직접 대면하고 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으로 선정하였다. 성인학습지원센터 직원은 A전문대학에서 장기근속하였으며 학생들의 특징 또는 학교 측의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을 위해 선정하였다. 대학 관계자는 전(前)성인학습지원센터 센터장과 교수직을 겸직하였고 A전문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전반, 지역사회와 관련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정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참여자 특성

번호	참여자	성별	구분
1	면담 참여자A	여	성인학습자(a학과 2학년)
2	면담 참여자B	여	성인학습자(b학과 1학년)
3	면담 참여자C	여	성인학습자(a학과 2학년)
4	면담 참여자D	남	성인학습자(a학과 2학년)
5	면담 참여자E	여	성인학습자(b학과 1학년)
6	면담 참여자F	여	교수자(단과대학 학과장)
7	면담 참여자G	남	성인학습지원센터 직원
8	면담 참여자H	남	前성인학습지원센터 센터장

심층 면담을 위하여 2021년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LiFE사업 정책 관련 문헌, A전문대학 홈페이지, 내부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지가 작성되었다. 동 기간에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하여 사전자료를 확보하고 면담 참여자를 추천받아 면담 일정을 조율하였다. 대학 관계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질문 내용, 소요 시간 등이 설명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동의 절차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이메일을 통해 완료되었다. 면담은 2021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의 기간동안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문답을 병행하며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면담 자료의 수집을 위해 총 8번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할 때는 질문지를 활용하고 면담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면담 내용을 녹취한 파일은 연구진이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매회 인터뷰 후에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였고, 모든 자료의 이름, 나이, 성별, 전공 등 연구참여자의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는 기호화하여 수집하였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입학동기, 학교 생활,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 학교나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이었으며, 교수자와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성인학습자에 대한 인식, 운영현황, 학교나 제도 차원의 지원, 교수법,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면담은 대표 면담자 1인을 지정하여 진행하였고, 다른 연구진은 참관하며 녹취, 녹화, 관찰 등을 수행하였다. 피면담자 1인당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의 방식은 COVID-19에 따른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

면담 과정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화 및 녹취되었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분석하고, 자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 유목화하며, 의미 단위를 구분하는 자료의 단

위화 과정을 거쳤다(Lincoln & Guba, 1985). 분석 과정에서 사전에 수집한 문헌자료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자료를 다원화하였고(Yin, 2009), 연구자 간 분석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통합 분석하였으며, 평생교육 전공 교수 및 정책 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대학의 LiFE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증적인 쟁점요인과 쟁점요인별 특징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의 7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의 범주는 연구참여자들의 의미있는 진술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전사자료 개별 분석, 유목화, 단위화 과정을 거친 후 지속적인 교차검증과 합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으로 인한 쟁점,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입학 동기 및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성인학습자 차원의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학교 차원에서 학사운영 및 사업추진방향에 따른 쟁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제도 차원에서 입학 기준과 제도 접근성에 대한 의견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 성인학습자 차원

가. 성인학습자의 특성: 경험의 발자취로부터 이어지는 선명한 목적지

LiFE사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성인학습자는 실용적인 이해도가 높고, 경험을 학습에 활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성인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현실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있었으며, 체험·실습 수업을 선호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면담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은 개인의 풍부한 경험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성인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인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제가 20대하고 조금 다른 거는 경험이 많잖아요.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약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잘 이렇게 또 헤쳐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면담 참여자C)

“그래서 실기 대면 수업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만들고 붙이고 재봉질하고 처음에는 몰랐는

데 완성된 작품을 딱 보면 이걸 내가 했구나하는 뿌듯함이 생기고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면담 참여자D)

“사실 일반 20살,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온 학생들과 다르게 굉장히 목적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처럼 그냥 이제 시기에 맞게 대학에 진학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성취감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요구가 구체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면담 참여자G)

특히, 전문대학은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진학한 성인학습자는 경험을 기반으로한 실용적 학문 추구의 모습을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의 전공 수업은 체험·실습 수업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학위 과정으로 자격증 준비 수업 등을 추가 구성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인 학습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수혜자, 교육 제공자, 환경적 여건 등에서의 간극은 LiFE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나. 입학동기 및 학습의 의미: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학습 여정

성인학습자의 실용적 학문을 추구하는 특성은 학습자들이 학업을 통해 학습과 관련한 경력을 탐색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LiFE사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은 학위취득을 주요 목적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스스로의 자아 인식과 만족감,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고취하는 데에서 학습의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입학하기 전에는 그냥 주부였거든요, 결혼을 조금 일찍해서. 결혼 전에 한 20대 초반에 다른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퇴를 하고, 이제 주부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옛날부터 사서가 되는 게 또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공 특성을 살려서 공공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서 공무원도 이제 꿈을 꾸고 있고요. (중략) 자아존중감도 좀 높아지고, 되게 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도 나뉘어지고, 많이 좋았어요.” (면담 참여자B)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 3명은 본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남편이랑 아들이 얼마 대학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못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아들 때문

에 못 그만둔 분도 계셨어요.” (면담 참여자F)

“처음에 일단 자격증이 나오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따고 싶고. 좀 더 심화된 과정을 요구하는 공부들인데 성취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래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하게 돼요.” (면담 참여자C)

“저는 원래 이제 학교를 체육 전문대를 좀 다니다 말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에 관한 어떤 갈등도 있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때가 90년대랑 지금하고 너무 다르겠지만, 여러 제도들이 있어서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깐 그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면담 참여자D)

특히, 전문대학에 진학한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위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 자격증 등 실용적 목적의 학습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교육의 재기회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학습자들은 학습 본연에 대한 요구와 실용적 목적의 요구, 자아존중감 고취 목적 등의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동기를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LiFE사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 학습장애요인: 일, 학습, 가정의 갈림길

면담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일·학습·가정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전통적인 학습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고, 직업이나 가정을 가지고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이 학습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전문대학에서는 가정과 학습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학습자 많았다.

“이 고민을 했어요. 입학할 하는 것 자체도 남편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허락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이 이제 싫어하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이제 아이도 봐야 하는데… (중략) 직장인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면담 참여자B)

“저랑 1학년 때 굉장히 같이 잘 어울리고 친했던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임신이 아니었으면 같이 다녔을 텐데 임신 때문에… 쌍둥이를 가져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돼서 그래서 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면담 참여자C)

또한, 통학거리가 멀 경우 이러한 학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성인학습자의 학

업 중도포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하였으나 전문대학의 경우 총 30개교 중 7개교로 한정적이고, 지원 대학 내의 설치 전공이 상이함에 따라 원하는 전공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성인학습자들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거리가 있어서 중도 하차를 하는 사람들도 몇 명 봤거든요. 멀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ktx 타고 3~4시간 왔다가 끝나고 또 내려갔다가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어도 그분들한테는 이게 쉽지가 않은 어떤 선택인 것 같았나 봐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좀 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멀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면담 참여자D)

“다른 한 분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전라도 광주. 그래서 저희 반만 해도 현재 김해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대전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되게 멀리서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학교랑 가깝거든요. 지방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청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면담 참여자C)

성인학습자의 일, 학습, 가정 병행을 돕고, 중도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LiFE사업이 안고 있는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성인 학습자가 일, 학습,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유연한 학사제도, 장거리 통학자를 위한 대학 간 연계 및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LiFE사업 참여 대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대학 내·대학 간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학교 차원

가. 학사운영: 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학습자에 의한!

A전문대학은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평일 야간 수업, 주말 수업, 온라인 수업 등의 유연한 수업 시간 운용 및 수업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성인학습지원 센터를 주축으로 자격증 과정, 동아리 활동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부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자격증 과정 등의 실용적인 제도가 학사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장학금, 마일리지 제도, 자격증 취득과정이나 실습 재료 등에서의 지원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일단 저는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고요. 학업하고 직장 생활을 병행함에 있어서 강의 시간에 대

한 부담감이 적은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자체가 지금 평일 하루 출석과 토요일 중일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학생들한테 부담이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자기 미래를 꿈꿔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담 참여자E)

“교양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거의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전공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으로 좀 하다가, 1학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재료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여기 와서 보니까 장학제도나 마일리지 제도나 이런 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면담 참여자D)

“스타일리스트랑 샵마스터랑 그리고 이제 VMD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용 관련 종합으로 해서 네일아트라든가 피부숍이라든가 미용실을 차릴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면담 참여자A)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는 비교과과정 위주로 성인학습자들의 상담이라든가, 자격증 과정 같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략) 직업 상담사분들이 저희 성인학습지원센터에 소속이 돼 있어서 계속 근무를 같이 해오셨습니다. (중략) 대부분이 지금 재직자분들이어서 재직자 위주로 모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담 참여자G)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학습자와 구별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대학이 성공적으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인식 개선과 체제 개편을 우선적 과제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들이 처음 이런 성인 LIFE사업의 학과장도 하고, 본인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초임 교수도 되게 많았었고, 물론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면담 참여자H)

“저희 학교 시스템이 아직은 일반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도 성인학습자를 대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고등학교 막 졸업한 학생들이 그냥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 위주로 더 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교과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면담 참여자I)

담 참여자G)

“20대 친구들에 관한 수업을 하는 내용과 저희 성인학습자들에 관한 내용이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등학생 졸업한 친구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보다도 아버지, 엄마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입시켜 놓고 같은 질문을 해버리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면담 참여자D)

이러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인적 인프라를 통해 메워지고 있었다. 교수자, 직원, 동료 학생 등의 휴먼웨어는 현재 대학이 LiFE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헌신을 넘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 명을 단위로 해서 팀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장을 좀 젊은 분으로 정했어요. (중략) 돈독해졌다고 할까요. 막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팀장님들은 이제 팀원들을 챙기고, 팀원분들은 또 팀장님들한테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니까.” (면담 참여자F)

“제가 중간에 아까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도 이제 친해지고, 정든 것도 있고, 학교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중략) 그런 부분들에서도 교수님들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의욕이 앞서가지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부분도 있거든요.” (면담 참여자D)

“제도적인 부분이 교수님들께 다 말씀이 되어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겠죠. 저희가 학교에서 제도적인 그런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교수님 개개인의 배려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더 컸어요.” (면담 참여자B)

나. 사업추진방향: 대학의 생존을 넘어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역할 변화를 기조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 참여자들은 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가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물론 정부의 평생교육 강화 정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조 속에서 00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에서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 해보자 하는 일환으로... (중략) LiFE사업에 해당하는 성인학습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후진학년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겠지만 지금 이제 30%에서 40%까지도 성인학습자 비율을 늘려가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 학

교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목표도 사실 총장님이 처음부터 이제 지정을 하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의 선도 대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이제 총장님 아이디어에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면담 참여자G)

“총장님이 평생교육 전공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들 00전문대학교의 총장님이 그러니까 LiFE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 흐름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담 참여자F)

또한 대학의 생존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실용적·실리적 관점에 방향성을 두고 LiFE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하고자 하는 결정권자의 의지와 이에 긴밀히 반응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실행력이 바탕이 될 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역할 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걸 학령기 학생의 감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학의 앞으로의 방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성인학습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존 차원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도전을 했던 부분이었고.” (면담 참여자H)

3. 제도 차원

가. 입학 기준: 학습 기회와 학습의 질 사이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할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입학 기준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의 주된 의견 중 하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수준 편차가 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성인학습자의 기초 수준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보이는 성인학습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 비해 고령의 학습자가 다수 존재하고, 성인학습자의 입학 연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연령 간 편차에서 오는 학습격차가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 차이에 맞춰서 학습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중간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중략)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나이대를 어떻게 좀 분반을 하던지 약간 전문성이 더 이렇게 좀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면담 참여자B)

“특히나 재직자들은 그래도 컴퓨터가 좀 익숙하신데 재직하지 않고 만났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어서 이제 정말 기초 대학 생활이 영위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면담 참여자G)

“홍보 전략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대학 학교 수업을 들을 정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자체도 사용이 안 되거나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도 기본 교양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면담 참여자H)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학 기준 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유연한 입학 기준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 학습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필요한 방향이다.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입학할 때 시험이 없다는 거. 그게 되게 부담감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입학 시기를 놓쳐서 제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대학 생활을 약간 못 누리보신 분들에게 이런 성인학습자 전형이 있는데 이런 전형 시험을 안 본다. 나이만 충족되면, 정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일반 학부처럼 장학금도 받아오고, 학교 생활도 똑같이 하고…” (면담 참여자B)

“정책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수도권은 지금 만 30세 이상 또는 특성화고 경력 3년 이상 재직자가 입학 대상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전형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일정 경력을 보유한 재직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주면은 성인학습자들이 더 많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담 참여자G)

성인학습자의 기초수준 확보 문제와 입학기준 유연화 문제는 LiFE사업이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적 성장과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을 담보하는 질적 성장의 이질적인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인학습자의 입학기준에 대한 양가적인 요구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두 가지 방향의 양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제도 접근성: 제도적 홍보를 통한 앞에 대한 알림

LiFE사업에 대한 제도 접근성에 관하여 면담 참여자들은 사업 홍보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인학습자들은 제도에 대해 지인 등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접하게 되거나, 학교 차원에서의 홍보물을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접하는 경로로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입학

후의 학업과정에서 오는 만족감이 성인학습자들의 자발적 홍보로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제도적인 홍보가 뒷받침될 때 성인학습자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많은 비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수님 통해서 알게 돼서 오거나,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또는 직장 선후배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어떤 대중적인 매체보다는 지인을 활용한 이런 홍보가 더…” (면담 참여자G)

“추천도 사실 몇 번 이미 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있다. 성인학습자 전형이 저는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놀라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게 있었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면담 참여자B)

“가장 좋은 방법이 잠깐이라도 tv 매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성인학습자들도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뭔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면담 참여자F)

또한, 제도적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LiFE사업 참여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거리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경우 성인학습자의 장거리 통학에서 오는 학습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자원 확보와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 방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대전, 광주 다양하더라고요. 하남시, 광명, 수원.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하구나. 이 사업이 학교 근처에 살거나 서울 근교에 살았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고, 가까우니까 왕래도 좀 하면서 뭔가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멀다 보니까 이게 쫓기듯이 왔다가 쫓기듯이 가야 돼요. 그리고 차로 이동을 해도 막히면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쫓기는 어떤 학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면담 참여자D)

“전체적으로 대학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인 거고, 지역 대학에 대해서는 사실 저 대학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이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범 단계로 보이는 거예요.” (면담 참여자H)

결론적으로 근거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는 등 지역과 연계하였을 때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기관·기업과의 협력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LiFE사업은 제도적인 홍보로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전문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문대학의 LiFE사업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쟁점요인별 특징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전문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쟁점현상들을 성인학습자 차원, 학교 차원, 제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논의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드라고지적 특성을 보이는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LiFE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존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본연에 대한 요구와 실용적 목적의 요구, 자아존중감 고취 목적 등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인 요구조사, 상담, 학습자 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Yeon, 2020), 나아가 개인적인 배움의 기회가 사회적 관심으로 변환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Kim, 2021) 대학 구성원의 인식 개선, 사회 전반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해 확장은 대학 내에서는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하며,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인학습지원센터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1차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교수, 직원, 전통적 학습자 등의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연수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율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대학 평가에서 탈피하여, 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정성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율은 LiFE사업 지원 대학의 평가지표 중 한 항목으로 LiFE사업의 홍보와 신입생 충원은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은 각 대학 차원의 생존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성인학습자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대명제를 앞에 두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더 많은 성인

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LiFE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홍보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애요인이었던 일·학습·가정 병행에서 오는 어려움은 특히 전문대학의 장거리 통학 성인학습자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LiFE사업 참여 대학이 지역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조지아 대학은 UGA 프로그램인 아치웨이 파트너십(archway partnership)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Garber & Adams, 2017), 일본의 대학COC사업(center of community)에서는 대학의 전문 지식과 역량 및 대학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산업발전 및 고용에 기여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Jang, 2019). 정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인으로서 LiFE사업 참여대학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은 지역 내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은 지역사회 내의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고, 지역 내 성인학습자를 신입생으로 충원함에 따라 안정적인 입학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도 차원에서 LiFE사업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성인학습자의 기초수준 확보 문제와 입학기준 유연화 문제의 모순적 충돌 구조를 개선하고, 양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현재 성인학습자의 학습 수준 편차에서 오는 간극은 교수자, 직원, 동료 학생들의 헌신으로 메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고령의 학습자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연령 간 편차에서 오는 학습격차가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현재 LiFE사업 지원 대상 학교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강의실 안으로 응집하게 되고 그 문제들을 교수자들이 오로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Yang, 2020). LiFE사업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고려하였을 때, 인적 인프라를 통한 휴먼웨어의 힘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조속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는 LiFE사업이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적 성장과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을 담보하는 질적 성장의 이질적인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2+2) 지원사업인 LiFE사업의 2+2 제도의 개념을 학위과정에 적용하여, 다년도(4+4 또는 2+2)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LiFE사업이 당면한 쟁점요인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다년도 학사제도는 4년제 대학의 경우 4+4년, 전문대학의 경우 2+2년을 일반적인 학사 기준으로 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일·학습·가정을 병행할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고,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수준 편차를 메우기 위하여 대학이 최단기간 4년(전문대학의 경우 2년)에서 최장기간 8년(전문대학의 경우 4년)의 기간 동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디그리·나노디그리 등의 학점당 학위제, 기초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선행 학습제, 수준별·단계별 수업 구성 등의 학사운영을 통해 학습 수준이 미달되는 학습자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부족한 학습량을 보충하고,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입학 기준 유연화를 통해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인학습자의 기초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LiFE사업에 참여 중인 전문대학의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전문대학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요인과 쟁점요인에 따른 특징적인 현상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차원, 학교 차원, 제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이 LiFE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 역사가 3년여로 길지 않아 사업추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LiFE사업의 근본적인 쟁점요인이 공존하는 데에서 오는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의 LiFE사업 운영이 안정된 이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쟁점요인의 종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사례에 집중되었던 LiFE사업 관련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특성(학과, 나이, 학년, 직업, 보직, 과정이수 기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 전공 내 활동, 사회적 활동 및 LiFE사업 참여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한 연구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소별 영향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Ahn, H. Y. (2021).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adult learners' intention to dropout of lifelong education in universities: Focusing on adult learners involved in their dedicated academic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9), 671-69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671> 국문: 안현용(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중도탈락 의사에 미치는 요인분석: 성인 전담 학위과정 참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671-691.
- Cho, D. Y., & Kim, J. J. (201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adult learner-targeted college based on case study of foreign universities: Focused on cases of US and UK.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3(1), 379-404. <https://doi.org/10.29318/KER.23.1.15> 국문: 조대연, 김정주(2017).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성인전담 단과대학 운영방안: 미국과 영국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3(1), 379-404.
- Garber, M., & Adams, K. R. (2017). Achieving collective impact: Reflections on ten years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archway partnership.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21(1), 6-29.
- Jang, J. E. (2019). Th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through university-local community cooperation: Focusing on Japanese universities' Center of Community(CoC).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3(1), 85-110. <https://doi.org/10.52758/kjle.2019.25.1.85> 국문: 장지은(2019). 대학-지역연계에 의한 지역평생교육의 확장: 일본의 대학 COC 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5(1), 85-110.
- Jeong, H. I., Kim, E. B., & Cho, D. Y. (2019). Lifelong learning policies in Korea: Central administration in 2018.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6), 73-91. <https://doi.org/10.34226/gcl.2019.9.6.73> 국문: 정홍인, 김은비, 조대연(2019).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현황: 2018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9(6), 73-91.
- Kim, H. B. (2021). The concept of public pedagogy and its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111-129. <https://doi.org/10.34226/gcl.2021.11.4.111> 국문: 김한별(2021). 공공교육의 개념적 이해와 평생교육 논의에 주는 시사점.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111-129.
- Ko, J. W., Kim, H. S., & Ahn, H. Y. (2021). Professors' perceptions on outcomes of th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education project.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7(4), 85-109. <https://doi.org/10.26857/JLLS.2021.11.17.4.85> 국문: 고

- 장완, 김효선, 안현용(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 성과에 대한 참여 교원 인식 분석. **평생학습사회**, 17(4), 85-109.
- Lee, K. H., & Hong, H. D. (201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education characterization policy: College policy based on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12(3), 97-131. ☞ 국문: 이기호, 홍형득(2018). 대학교육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연구: 전문대학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IPA) 분석 중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3), 97-131.
- Lim, Y. H., & Kwon, I. T. (2018). Strategies and challenges in continuing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1), 95-115. <http://dx.doi.org/10.18230/tjye.2018.26.1.95> ☞ 국문: 임영희, 권인탁(2018). 대학평생교육정책의 실태분석과 전략. **열린교육연구**, 26(1), 95-11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e*. Sage.
- Ministry of Education (2021). *Basic plan for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lev=0&statusYN=W&s=moe&m=0304&opType=N&boardSeq=84513> ☞ 국문: 교육부(2021). **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2020). *Fast facts: Back to school statistics*. https://nces.ed.gov/fastfacts/display.asp?id=372#College_enrollment.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2019). *2018 Handwriting of best practices for adult learners i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https://univ.nile.or.kr/nile/referenceRoom/promotion/promotionView.do> ☞ 국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2020). *2019 Handwriting of best practices for adult learners i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https://univ.nile.or.kr/nile/referenceRoom/promotion/promotionView.do> ☞ 국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2020). *2019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lifelong&bcode=CAHAAAA&bmode=list&category=C11> ☞ 국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2019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2021a). *2020 Lifelong education white paper*.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lifelong&bcode=CAHAAAA&bmode=list&>

- category=C11 ☞ 국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a). **2020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2021b). *2020 Handwriting of best practices for adult learners i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https://univ.nile.or.kr/nile/referenceRoom/promotion/promotionView.do> ☞ 국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b). **2020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Park, S. H. (2019). Direction of university senior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German senior university and U3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5(2), 1-18. <http://dx.doi.org/10.31748/KSEG.2019.5.2.1> ☞ 국문: 박성희(2019). 독일 노인대학교 및 U3A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학 노인평생교육 체제 구축 방향. **노년교육연구**, 5(2), 1-18.
- Smith, L. M. (1978). An evolving logic of participant observation, educational ethnography, and other case studies. *Reviews of Research in Education*, 8(1), 316-377. <https://doi.org/10.3102/0091732X006001316>
- Trow, M. (1999). From mass higher education to universal access: The American advantage. *Minerva*, 37(4), 303-328.
- Trow, M. (2007). Reflections o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to universal access: Forms and phases of higher education in modern societies since WWII. In J. F. James, & G. Philip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higher education* (pp. 243-280). Springer. http://dx.doi.org/10.1007/978-1-4020-4012-2_13
- Yang, E. A (2020). The design fallacy of LiFE(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education) project.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6(4), 1-34. <http://dx.doi.org/10.26857/JLLS.2020.11.16.4.1> ☞ 국문: 양은아(20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설계 오류. **평생학습사회**, 16(4), 1-34.
- Yang, E. A., Kim, M. S., & An, S. H. (2021). Analysis of changing patterns and affecting factors of adult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in the LiFE projec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7(1), 31-69 ☞ 국문: 양은아, 김민수, 안소희(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한 성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7(1), 31-69.
- Yang, H. K. (2019). Historical transition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5(2), 281-302. <http://dx.doi.org/10.35637/klehrd.2019.15.2.012> ☞ 국문: 양홍권(2019).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5(2), 281-302.

- Yeon, J. Y. (2020). A case study on the flexibilization of the undergraduate system of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LiFE: Focusing on differences of understanding among participating actor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IJACE)*, 23(3), 1-27. <http://dx.doi.org/10.22955/ace.23.3.202008.1> 국문: 연지연(20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참여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 사례 연구: 참여주체 간의 이해 차이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IJACE)*, 23(3), 1-27.
- Yin, R. K. (2008).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ed.) (K. S. Shin, & A. Y. Suh, Trans.), Hanky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국문: Yin, R. K. (2008).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공역). (원서출판 2003).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ed). sage.